

제2회 마한문화축제 10월28일 개막

나주박물관·반남고분군 일원
3일간 '마한, 현재에 숨쉬다' 주제
분장패레이드·포럼·공연 등 다채

나주시가 '제2회 마한문화축제'를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마한역사문화 유적지인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 일원에서 '마한, 현재에 숨쉬다'를 주제로 열린다.

마한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마한 역사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2000년 마한역사 재조명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한마당 잔치로 펼쳐진다.

올해 두번째로 맞이하는 마한문화축제는 10월 28일 마한 분장 패레이드, 소도제, 솟대공연을 시작으로 3일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마한어린이 재능잔치와 청소년 역사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마한역사 연구 발표대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한학술포럼을 비롯한 마한의상 체험, 금동신발·육목걸이 만들기, 움집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도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해 열린 제1회 마한문화축제 소도제에서 마한시대 제례행위인 '천신맞이'를 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또 남사당패 공연, 서커스 공연, 마한 인형극, 마한인 어울마당, 마한 씨름왕 선발대회와 함께 낭만콘서트 7080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4일 "나주를 중심으로 영산

강 일대에서 마한시대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나주의 정체성을 찾자'는 차원에서 축제로 개최하게 됐다"며 "제2회 마한문화축제가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지역 설화 568편 담긴 구연설화집 발간

나주지역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각종 설화를 구연 형식으로 담은 책 '나주 토박이 나중삼 올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중삼(97)씨는 나주시 반남면에서 출생한 지역 토박이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조선의 역사적 인물들을 비롯한 각종 제담과 주변의 역사나 지형에 관한 전설, 명당, 풍수, 조상과 일가친척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설화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책자는 전체 3권으로 1~2권은 설화자료집, 3권은 속담풀이로 구성돼 있다. 특히 2권에는 구술자인 나중삼씨의 생애와 구술내용의 특징, 조사과정의 이야기와 학술적 가치 등을 한편의 논문으로 정리한 화자본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실려 있다.

이 책에 실린 설화 자료들은 지난 1998년 당시 나주대학(현 고구려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던 구비설화 전공자인 이수자 교수가 나주지역의 설화조사를 진행하던 중 당시 79세였던 나중삼씨를



만나 8개월에 걸쳐 이뤄진 구술 자료 원고를 나주시에 기증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간으로 나주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옛날이야기 콘텐츠를 확보해 역사문화도 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내

년 중으로 일반인이 읽기 쉬운 스토리 북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다양한 콘텐츠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 사이클팀, 양양 국제대회 종합 준우승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8·15경축 2016 양양 국제사이클대회'에서 종합 준우승과 최우수지도자상, 최우수신인상을 차지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대회에서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개인전에서 ▲500m독주 1위 ▲옴니엄 500m독주 1위 ▲옴니엄(플라잉랩) 1위(이상 김희주) ▲제외경기 1위(김민정) ▲스프린트 2위(김승연) ▲12km포인트경기 2위(신혜수) ▲5km 스크래치 3위(김보배) ▲1000m속도경기 3위(김석란)의 성적을 거뒀다.

또 단체전에서는 ▲단체스프린트 2위(김희주,

김승연, 김보배, 김석란, 방근혜) ▲4km단체추발 2위(신혜수, 최지혜, 김보배, 방근혜) ▲최우수신인상(김민정) ▲최우수지도자상(장선휘 코치)을 차지하는 등 총 금4·은4·동 2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실업사이클연맹이 주관하여 남녀 일반선수과 고교선수 등 60개팀, 300여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여했다.

양재환 사이클팀 감독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력적인 지원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준



나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엄마야 누나야' 작곡 안성현 선생 삶·업적 조명

10월 7일 국제학술심포지엄...중 연변대 최옥화 교수 기조강연



임경렬 나주문화원장(오른쪽)과 연변대학교 최옥화 교수가 심포지엄을 위해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안성현 선생이 육필로 쓴 음악 악보.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등을 작곡한 나주 출신 민족작곡가 안성현(1920~2006년) 선생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제1회 안성현선생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오는 10월 7일 개최된다.

임경렬 나주문화원장은 최근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 예술대학 최옥화 교수를 만나 10월 7일 나주에서 개최하는 제1회 안성현 선생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기조 강연자로 위촉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약서도 교환했다.

최옥화 교수는 안성현 선생에 대해 "중국 조선족 동포는 물론 중국 사람들도 애창하고 있는 국민 가곡 '해당화'를 작곡하고, 작곡가는 물론 지휘자,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순수 우리 민족 음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라며 "안성현 선생의 부친이신 안기옥 선생도 조선민족음악무용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연구서와 창작곡악곡 등을 작곡했으며,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우리 민족 국악발전에 데랄 수 없는 공들을 세운 음악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수집한 많은 자료와 사진들을 활용해 안성현 선생의 논문을 완성하면 그 후에는 6.25이전과 이후의 행적들을 총망라한 선생의

평전을 쓸 계획"이라며 "이번 심포지엄 기조연사로 선생의 고향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게 되는 최 교수는 중국의 '전국예술사학위 교육지도위원' 겸 '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문화예술연구소 상무부주임', '연변대학 예술사학위위점 주임', '연변음악가협회 부주석' 등을 맡고 있으며, 중국 최고의 아카데미 연주가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안성현 선생은 일제 강점기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곡을 붙인 월북 음악가로 고향인 나주 지석강변에는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도 세워져 있다.

안 선생은 일본 도쿄 동방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후 광주사범학교, 조선대학교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호남지역에서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쳤다. 월북 무용가 최승희씨 남편의 조카이기도 한 안씨는 6·25전쟁 당시 최씨와 함께 월북, 그동안 북한에서의 행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86세로 타계한 사실이 전해 지고 나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남평읍 드들강 솔밭서 '엄마야 누나야' 들어볼까

노래비 주변에 음악센터 설치

'엄마야 누나야 강변솔밭' 노래말의 실제무대로 알려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솔밭에 건립된 안성현 선생의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 주변에 음악센터가 설치돼 음악과 노래비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음악센터에는 안성현 선생이 6·25 이전에 작곡한 엄마야 누나야, 앞날의 꿈, 진달래, 내고향, 어부의 노래, 들국화, 낙엽, 봄바람, 비, 부용산 등 10곡의 주옥같은 노래들이 담겨 있다.

특히 10곡 중 선생의 대표곡인 엄마야 누나야와 부용산 외 8곡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음원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한편 남평읍은 이번 센터 설치 작업과 함께 음원이 담긴 CD 1000장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무상



나주 남평 지석강변에 세워져 있는 안성현의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

으로 보급하는 한편 노래비 주변과 드들강 솔밭을 새로운 휴식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여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